

## 미 증시, 긍정적인 고용보고서 불구 장중 SVB 파산 소식에 하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 미 증시 동향: 장중 SVB 파이낸셜 파산 소식에 하락 전환

•미 증시는 고용보고서 내 시간당 임금이 둔화되는 등 긍정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으나, 지역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장 초반 부진. 이후 관련 이슈가 확산될 가능성이 없다는 기대로 상승 전환했으며 바이든이 다음주 CPI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발언도 긍정적. 그런 가운데 미 규제 당국이 SVB 파이낸셜에 대해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하자 하락세로 전환 후 본격적으로 낙폭 확대. 특히 높은 금리 영향이 큰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매물 출회. 이후 물량 소화 과정을 보이며 안정 속 하락 마감(다우 -1.07%, 나스닥 -1.76%, S&P500 -1.45%, 러셀2000 -2.95%)

### 특징 종목: 지역 은행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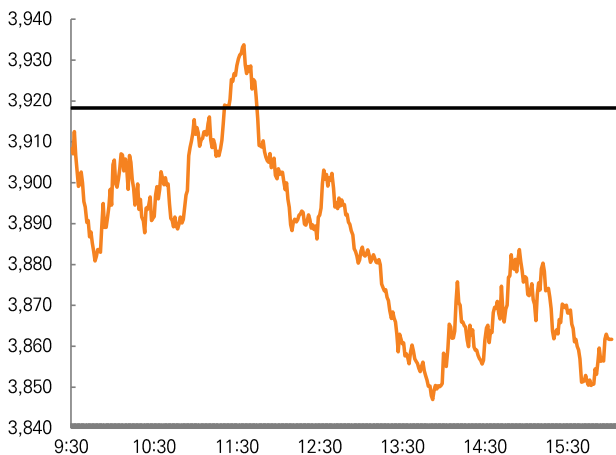
•로쿠(-0.88%)는 SVB에 예치된 예금이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중 26%가 예치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간 외 3% 하락 중. 로블록스(+0.28%)도 5%가 예치되어 있다는 소식에 1% 하락 중. SVB 사태로 지역 은행들 중심으로 부진(퍼스트 리퍼블릭 -14.84%, 시그니처 은행 -22.87%). 반면, 웰스파고(+0.56%), JP모건(+2.54%) 등 대형 은행주들은 견고. 특히 JP모건은 최고 신용카드 발급사 자리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상승폭이 컸음. 테슬라(+0.45%)는 한국의 L&F와 더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

### 한국 증시 전망: 미국 물가지표 기다리며 제한적인 등락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는 0.05%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5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8.34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6% 상승. KOSPI는 소폭 하락 출발 예상.

•미 증시는 장 초반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 규제 당국이 SVB 파이낸셜을 폐쇄하고 파산 절차에 돌입하자 본격적인 하락으로 전환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그렇지만, 이번 사태는 개별 기업 이슈일 뿐 확대될 개연성은 크지 않다는 점등을 감안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에 대한 제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점은 미-중 갈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 다만,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시간당 임금이 둔화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에 대해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발표한 점은 긍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보험권 출발 후 SVB 사태의 변화와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394.59	-1.01	상해종합	3,230.08	-1.40
KOSDAQ	788.60	-2.55	홍콩항생	19,319.92	-3.04
DOW	31,909.64	-1.07	베트남	1,053.00	-0.28
NASDAQ	11,138.89	-1.76	유로스톡스 50	4,229.53	-1.32
S&P 500	3,861.59	-1.45	영국	7,748.35	-1.67
캐나다	19,774.92	-1.55	독일	15,427.97	-1.31
일본	28,143.97	-1.67	프랑스	7,220.67	-1.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 ① 고용보고서 해석 ②SVB 파이낸셜 사태

미국 2월 비농업 고용자수는 지난달 발표된 50.4만 건에서 31.1만 건으로 둔화되었으나, 시장 예상치인 22.3만 건을 상회했으며, 고용참여율이 62.4%에서 62.5%로 증가하자 실업률은 3.4%에서 3.6%로 상승. 시간당 임금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27%에서 +0.24%으로 둔화

세부적인 수치를 보면 비농업 고용자수 증가를 주도한 업종은 24.5만 건의 개인 서비스 부문인데 소매업종이 5만 건 증가했으며 그 중 백화점 등 일반 소매업체가 3만 9천여건 증가. 레저 및 접객업도 10만 5천건 증가했는데 그 중 식당이 7만건 증가. 결국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온화한 날씨와 그에 따른 외부 활동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한편, 5주 미만의 실업자는 지난 달 28.7만 건 감소했지만 이번달에는 34.3만 건 증가해 임시직의 해고 및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주목할 부분은 시간당 임금인데 전월 대비 0.24% 상승해 지난달 발표된 0.27%에서 둔화. 특히 경제와 관련된 제조업이 전월 대비 0.51% 상승에서 이번달에는 0.03% 하락으로 전환. 도매 무역도 1.17% 상승에서 0.36% 하락으로 전환. 그런 가운데 소매업이 지난달 전월 대비 0.38% 상승에 이어 이번달에는 1.15%나 상승했으며 레저 및 접객업도 0.05% 하락에서 0.29% 상승으로 전환. 결국 시간당 임금은 제조업과 무역 등은 둔화되는 모습이나, 외부 활동 중심으로 임금이 증가

이를 감안 시간당 임금은 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향후에도 하향 안정 가능성이 높고, 비농업 고용자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고용의 견조함을 보이고 있으나, 날씨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연속성은 크지 않음. 이 지표 발표 후 달러 약세, 국채 금리 하락, 지수 선물 반등 등이 이어지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임

SVB파이낸셜 사태는 연준의 급격한 기준 금리 인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예금을 인출했고, 그런 가운데 매도가능증권 즉 AFS를 모두 매각해 18억 달러 손실을 확정했는데 뱅크런 조짐이 나오자 손실에도 불구하고 매각했다는 점이 부각. 즉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손실을 메우기 위해 2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증가에 나서자 주가가 급락. 그러자 벤처캐피탈 업체들이 투자한 벤처기업들에게 SVB 파이낸셜에 있는 자금 인출을 권고했으며, 뱅크런이 가속화.

이런 가운데 장중에 미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가 SVB파이낸셜 은행을 폐쇄했고, 이를 토대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향. FDIC는 모든 예금을 즉시 예금보험 국립은행(DINB)로 이체했으며 DINB는 월요일 재개되는데 예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FDIC가 은행 자산을 매각하면 향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음. 관련해 로쿠 등 일부 기술주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목. 이는 자금이 묶일 수 있기 때문

다만, SVB파이낸셜 사태가 여타 대형 금융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은행들의 예대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69%에 그쳐 지난 2019년 80%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규제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 물론, 금리 급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해 중소형 은행들 중 일부는 부담이나 이 영향이 확산될 개연성은 크지 않기 때문. 실제 오늘 미 증시에서 대형 은행주는 상승하거나 제한적인 하락에 그친 반면, 중소형 지역 은행들은 SVB 파이낸셜 파산절차 돌입 이후 하락폭을 확대해 차별화가 진행



## 대형은행주 견고 Vs. 지방 은행 급락

로쿠(-0.88%)는 SVB에 예치된 예금이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중 26%가 예치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간 외 3% 하락 중. 로블록스(+0.28%)도 5%가 예치되어 있다는 소식에 1% 하락 중. SVB 사태로 지역 은행들 중심으로 부진(퍼스트 리퍼블릭 -14.84%, 시그니처 은행 -22.87%). 반면, BOA(-0.88%), 웰스파고(+0.56%), JP모건(+2.54%) 등 대형 은행주들은 견고. 특히 JP모건은 최고 신용카드 발급사 자리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상승폭이 컸음. 관련 소식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3.73%), 마스터카드(-2.07%), 비자카드(-1.76%) 등 카드사의 하락 요인

도큐사인(-22.85%)은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가이드언스에 대한 실망 등으로 급락. 캐터필라(-5.79%)는 UBS가 건설 및 광업 추세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하자 하락. 디어(-6.05%)도 동반 하락. 겍(-6.13%)은 예상보다 큰 손실을 기록한 후 하락. 오라클(-3.22%)도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로 하락.

테슬라(+0.45%)는 한국의 L&F와 더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 반면, GM(-3.44%)은 전일에 이어 대규모 희망 퇴직 발표 여파로 하락 지속. 포드(-2.81%)도 하락. SVB 사태가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애플(-1.39%), 알파벳(-1.78%), MS(-1.48%), 아마존(-1.65%) 등 대형 기술주는 달러 약세 및 금리 하락 불구 아이폰 판매 둔화 우려나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하락.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03	대형 가치주 ETF (IVE)	-1.55
클린테크 ETF (CTEC)	-1.71	중형 가치주 ETF (IWS)	-2.69
소매업체 ETF (XLY)	-1.00	소형 가치주 ETF (IWN)	-2.64
온라인소매 ETF (EBIZ)	-2.99	대형 성장주 ETF (VUG)	-1.78
미국 인프라 ETF (PAVE)	-3.33	중형 성장주 ETF (IWP)	-2.68
핀테크 ETF (FINX)	-3.80	소형 성장주 ETF (IWO)	-3.17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42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1.36
클라우드 ETF (CLOU)	-3.08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46
사이버보안 ETF (BUG)	-2.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06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2.09	미국 국채 ETF (IEF)	+1.84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64	하이일드 ETF (JNK)	-0.03
바이오섹터 ETF (IBB)	-1.60	신흥국 채권 ETF (EMBD)	+0.87
로봇&AI ETF (BOTZ)	-2.14	물가연동채 ETF (TIP)	+1.47
반도체 ETF (SMH)	-1.62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1.43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필수소비재	741.17	-0.46	-1.92	-2.82
헬스케어	1,443.91	-0.74	-3.95	-6.44
경기소비재	1,072.43	-0.98	-5.55	-6.79
에너지	628.78	-1.42	-5.35	-9.15
커뮤니케이션	170.71	-1.43	-4.10	-5.09
유틸리티	325.20	-1.60	-2.88	-5.39
IT	2,366.99	-1.74	-3.06	-3.31
금융	545.96	-1.81	-8.56	-9.93
산업재	835.48	-1.82	-4.46	-3.33
소재	491.26	-2.15	-7.64	-4.97
부동산	226.20	-3.25	-7.00	-10.36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미 물가지표 기다리며 제한적인 등락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는 0.05%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5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8.34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6% 상승. KOSPI는 소폭 하락 출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정치 불안 및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하락 출발. 특히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친 부진이 투자 심리 위축을 야기시킨 점도 부담. 여기에 중국 증시가 바이든 예산안에 있는 미국 자본의 중국 기업 투자에 대한 통제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미-중 갈등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한 점도 한국 증시에 부담. 이 여파로 KOSPI는 1.01%, KOSDAQ은 최근 상승을 이끈 종목 등의 약세가 뚜렷한 가운데 2.55% 하락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장 초반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 규제 당국이 SVB 파이낸셜을 폐쇄하고 파산 절차에 돌입하자 본격적인 하락으로 전환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그렇지만, 이번 사태는 개별 기업 이슈일 뿐 확대될 개연성은 크지 않다는 점등을 감안 영향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 물론, 로쿠 등 일부 기술주의 예금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해 관련 우려를 완전 배제할 수 없으나, 대형 은행들이 견고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에 대한 제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점은 부담. 이는 지난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 안에 포함된 미국 자본의 중국 기업 투자 관련 규제 예산 등과 더불어 미-중 갈등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 결국 SVB 파이낸셜 파산에 따른 기술주 변동성 확대 등과 함께 미-중 갈등 이슈까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

다만, 미국 고용보고서 중 시간당 임금이 둔화되고 있고, 비농업 고용자수도 일시적인 온화한 기후에 따른 외부활동 증대 등임을 감안 연준의 3월 금리인상이 25bp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우호적.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도 장 초반 14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한 점도 긍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보험권 출발 후 SVB 사태의 변화와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비농업 고용자수 둔화 및 시간당 임금 둔화

미국 2월 비농업 고용자수는 지난달 발표된 50.4만 건보다 둔화된 31.1만 건 증가했으나, 예상치인 22.3만 건을 상회. 한편, 지난달 발표 수치는 51.7만 건에서 50.4만 건으로 지난 1월 발표된 12월 수치도 26만 건에서 23.9만 건으로 하향 조정.

실업률은 3.4%에서 3.6%로 상승했으며, 고용 참여율은 62.4%에서 62.5%로 증가. 시간당 임금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27% 상승에서 0.24% 상승으로 둔화. 주간 노동 시간은 34.6시간에서 34.5시간으로 감소



## 미 2년물 국채 금리, 28bp나 급락

국제유가는 SVB 사태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로 인해 연준이 3월 FOMC에서 50bp 인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유입되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상승. 더불어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수는 온화한 날씨에 따른 외부 활동 이슈가 영향을 주며 예상을 상회했으나 시간당 임금이 둔화된 점도 이러한 요인을 더욱 자극 미국 천연가스는 온화한 날씨로 인한 난방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며 하락. 반면, 유럽 천연가스는 4개의 LNG 터미널이 프랑스의 연금 개혁 반대 시위로 인해 월요일부터 차단되었으며 중단은 3월 14일 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소식에 무려 21%나 급등

달러화는 비 농업 고용자수가 증가했으나 지난달 발표에 이어 온화한 날씨에 따른 외부 활동 관련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 연속성이 결여된다는 점, 그리고 시간당 임금의 둔화 등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이런 가운데 SVB 파이낸셜 파산 소식이 전해지자 약세폭이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이 영향으로 연준의 3월 FOMC에서 50bp 가능성이 약화된 점도 달러 약세 요인.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달러 대비 강세.

국채금리는 고용보고서에서 시간당 임금이 둔화되자 3월 FOMC에서의 50bp 인상 가능성이 약화된 가운데 SVB 파이낸셜 파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하락. 특히 2년물 국채 금리가 28bp나 급락했으며, 10년물 국채 금리도 20bp나 급락. 결국 고용보고서 결과와 SVB 파이낸셜 이슈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금은 달러 약세 및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2% 가까이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SVB 사태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에 힘입어 반등을 보이는 등 혼조세로 마감. 곡물은 최근 하락을 뒤로하고 달러 약세에 힘입어 옥수수과 밀은 상승. 대두는 미국 수출 수요 위축 우려로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6% 하락, 철근은 0.42%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6.68	+1.19	-3.84	Dollar Index	104.635	-0.64	+0.11
브렌트유	82.78	+1.35	-3.66	EUR/USD	1.0640	+0.56	+0.05
천연가스	2.43	-4.13	-18.98	USD/JPY	135.09	-0.78	-0.57
금	1,867.20	+1.99	+0.90	GBP/USD	1.2034	+0.91	-0.02
은	20.51	+2.03	-3.12	USD/CHF	0.9214	-1.20	-1.58
알루미늄	2,313.00	-0.64	-3.83	AUD/USD	0.6582	-0.12	-2.78
전기동	8,867.00	+0.16	-1.30	USD/CAD	1.3829	+0.01	+1.70
아연	2,937.00	-1.24	-4.57	USD/RUB	75.8886	-0.00	+0.32
옥수수	617.25	+1.10	-3.36	USD/BRL	5.2145	+0.96	+0.33
밀	679.25	+2.63	-3.60	USD/CNH	6.9388	-0.55	+0.63
대두	1,507.00	-0.25	-0.77	USD/KRW	1,324.20	+0.15	+1.74
커피	177.80	+1.57	-0.03	USD/KRW NDF1M	1,318.34	-0.39	+1.8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699	-20.45	-25.30	스페인	3.544	-10.10	-11.70
한국	3.582	-13.80	-19.00	포르투갈	3.384	-11.10	-19.10
일본	0.411	-9.50	-9.50	그리스	4.334	-8.40	-15.40
독일	2.508	-13.50	-20.70	이탈리아	4.319	-7.00	-21.1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